5國 대표단 축제의 도시 광주로

광주시 10월 '해외 자매 도시의 달' 지정 다양한 교류 행사

광주시는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10월을 '해외 자매·우호 도시의 달'로 정하고 문화·경제교류와 세계음식잔치, 각국 의상전시회 등 다양한 국제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광주비엔날레와 전국장애인체전, 광주김치축제 등 대형 행사 현장에 자매·우호도시 대표단과 광주 거주 외국인을 초청, 우애를 다지고 광주가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전기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시는 오는 12일을 '국제교류의 날'로 지정, 조선대 1·8극장에서 광주에 사는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외국인들과 시민 1천여명을 초청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지난해까지 13년째 이어온 '외국인의 날' 행사를 확대한 이날 행사는 외국인들이 겪는 타국 생활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각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한마당이다.

주요 행사로는 해외 자매도시들의 문화유적과 상호 교류 모습을 담은 사진전시회(12~19일, 시청 시민홀·조선대 노천극장), 한국어 말하기 대회, 세계음식잔치, 각국 의상전시회, 주한 인도네시아대사 초청 강연, 외국인 장기자랑, 인도네시아 메단시 민속예술단 축하공연 등이 펼쳐진다.

또 13일 오후 2시에는 지난 1997년 광주시와 자매도시 협정을 맺은 인도네시아 메단시와의 결연 10주년을 기념해 '메단로(路) 표지석 제막 행사'를 남구 짚봉터널 인근에서 아피푸딘 메단시장 일행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 시는 두 도시간 우의를 더욱 돈독히 다지기 위해 원광대 병원 입구~짚봉터널간 1천120m구간을 메단로로 지정했다.

17일에는 지난해 9월 광주시와 우호협정을 체결한 중국의 광산업 도시인 우한시 부시장 일행이 광주를 방문해 광주지역 광산업 업체들과 경제교류 상담회를 갖는다.

이 밖에 10월 중 중국 옌타이시와 일본 센다이시, 베트남 응에안성, 러시아 우정의 사절단 등 모두 5개국 10개팀 100여명의 대표단이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대만 타이난시, 미국 샌 안토니오시, 중국 광저우시, 인도네시아 메단시, 일본 센다이시 등 5개 도시와 자매도시 협정을, 이탈리아 토리노시, 독일 자일란트시, 중국 우한시 및 선양시와는 우호교류도시 협정을 맺고 최근 3년동안 72회에 걸쳐 교류협력 활동을 펼쳐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세계광엑스포 D-365

다양한 이벤트 성공개최 결의

광주시는 '2009 광주세계광(光)엑스포' 개막 1년을 앞둔 9일 다채로운 D-365 이벤트를 갖고 행사준비가 본격 시작됐음을 알린다.

광주시는 9일 오전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광엑스포 성공개최와 민·관·군 협력증진을 위해 상호 인적·물적 지원을 약속하는 조인식을 갖는다.

또 이날 오전 11시에는 D-365일을 맞아 광엑스포 개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리고 시민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카운트다운 전광판' 제막행사가 시청사 1층 입구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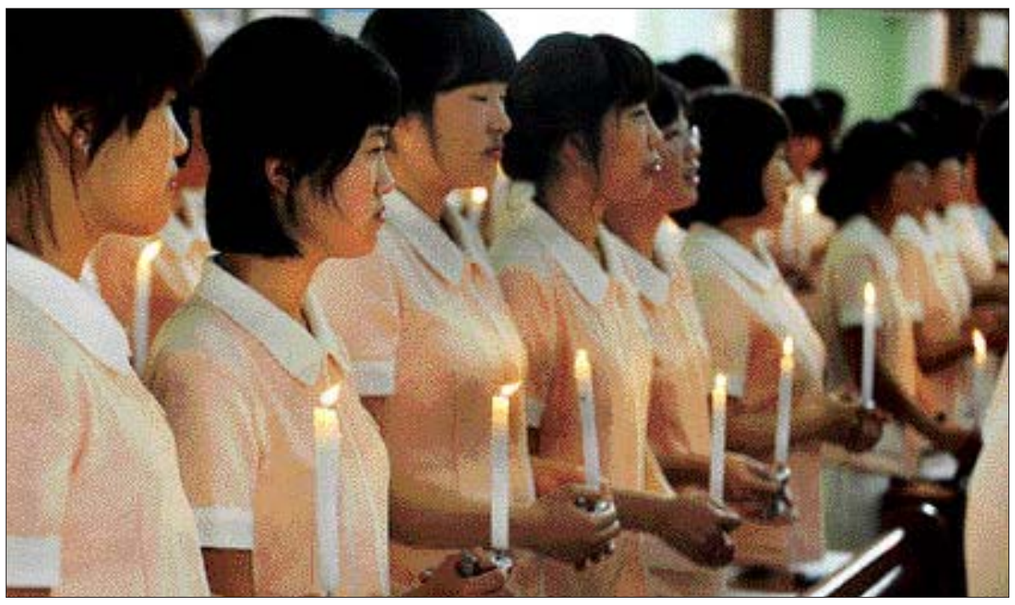
이어 오후에는 광엑스포의 랜드마크이자 영구 기념 상징물이 될 '주제영상관' 기공식이 엑스포 행사장인 상무시민공원에서 개최된다.

상무시민공원 호수 인근에 들어서는 주제영상관은 70억원을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1천500㎡에 250석 규모의 3D 입체영상관, 전시실과 휴게 전망대 등을 갖추게 된다.

세계 최초로 '빛'을 소재로 한 2009 광주세계광엑스포는 '미래를 켜는 빛'을 주제로 내년 10월 9일부터 11월 5일까지 28일 동안 서구 치평동 상무시민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정후식기자 who@

카운트다운 전광판 주제영상관 기공식



나이팅게일 선서식

광주기독간호대학은 7일 교내 오웬기념각에서 '제42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가졌다. 선서식에 참가한 1학년 학생 150명은 촛불의식을 통해 환자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할 것을 다짐했다. 기독간호대학은 지난 1966년 개교 이래 3천366명의 간호사를 배출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100년 이어온 '여성 교육의 산실'

수피아여·중고 10일 개교 100주년 다양한 기념행사

올해로 개교 100주년을 맞는 광주 수피아여·중고가 10일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펼친다.

'오늘은 수피아, 내일은 세계로'를 주제로 열리는 10일 기념행사는 수피아여·중고와 5·18문화센터에서 1·2부로 나뉘어 개최된다. 1부에서는 개교 100주년 기념예배, 조아라 기념비 제막식, 중학교 신축교사 기공식 등이 열리고, 설립자인 벨 선교사의 후손들이 만든 '유진 벨 재단'에 지원금을 전달한다.

5·18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열리는 2부에서는 수피아 출신 음악인들과 동문이 한자리에 모여 관현악 연주회와 합창 등을 공연한다. 음악인 동문으로 목포시립합창단 지휘자로 있는 하수미씨와 호남신학대 강양은 교수 등이, 재학생 대표로는 수피아여고의 노래 선교단인 글리클럽, 무용부가 출연한다.

수피아여중·고와 동창회는 이에 앞서 올해 3·1절을 앞두고 만세운동 재연행사를 가졌다. 광목 저고리 등 의상을 입은 수피아여고 학생 및 시민들은 이날 교내 '광주 3·1만세운동기념탑'에서 만세운동 진원지인 부동교를 거쳐 광주공원까지 향하는 가두행진을 벌이고 일장기 찢기 퍼포먼스 등을 선보였다.

1천 쪽에 가까운 '100년사(史)'에는 100쪽 분량의 각종 사진을 비롯한 동문들의 분야별 활동까지 수피아여학교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단위 학교의 역사를 기록했지만, 1세기 동안의 광주 근대교육을 말해주는 사료로도 손색이 없다.

미국인 선교사 유진 벨(Eugene Bell·1868~1925·한국명 배유지)씨가 1908년 광주시 남구 양림동에 숭일학교와 함께 설립한 수피아여학교는 3·1절 만세운동에 학생과 교사들이 적극 참가하며 독립운동의 선두에 섰으며, 1937년에는 신사참배 거부로 폐교의 아픔을 겪기도 했다.

숭일학교가 현재 일곡동으로 교사(校舍)를 옮긴 것과 달리 수피아여학교는 1945년 복교 후에도 설립 당시의 자리를 고수하며 역사의 산교육장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수피아홀 등 학교 건물 5개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문화재로 지정돼 보존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4만5천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공항 주변 소음 피해 심각

10곳중 7곳 방음벽 필요한 수준

광주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광주 서구청이 서일대학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맡겨 3월25일부터 31일까지 광주공항 주변 10곳의 소음 정도를 측정한 결과 7곳의 소음 정도가 80웨클(WECPNL·국제 항공기 소음도 측정단위)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15면〉

1주일 동안 매일 소음도를 측정해 평균치를 낸 고정측정지점 3곳의 경우, 서구 치평동 한 아파트 80.3웨클, 벽진동 한 주택 79.8웨클, 서창동 한 마을회관 80.2웨클 등 2곳이 80웨클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24시간을 측정해 평균치를 낸 이동측정지점 7곳의 경우, 서구 마륵동 한 노인회관 82웨클, 덕흥동 한 경로당 84웨클, 유덕동 유덕중 75웨클, 용두동 한 경로회관 84웨클, 매월동 한 주택 70웨클, 세하동 한 주택 83웨클, 문촌동 한 경로당 81웨클 등 5곳이 80웨클을 넘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청주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음 정도가 80~90웨클 거주자에 대해서는 월 3만~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는 등 80웨클 이상이면 방음벽 설치, 건물구조 개선 등 방음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전남대 정문 도로 명칭 변경 초대 총장 호 따 '남강로'로

전남대 정문을 감싸고 있는 도로의 명칭에 초대 총장의 호가 부여된다.

전남대는 "북구청과 논의한 끝에 신안로와 용봉로를 통폐합, 전남대 초대 총장 고 최상채 박사의 호를 따 '남강로(南崗路)'로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남강로는 북구청 사거리에서 전남대 정문으로 지나 신안교 앞 사거리까지 1.5㎞ 구간이다.

장흥에서 태어난 고 최상채(1903~1973) 박사는 전남대의 모태가 된 광주의과대학 초대 학장을 지냈으며, 1952년 전남대 개교와 함께 초대 총장을 역임했다. 현재 전남대 대강당 앞에 최 박사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